



經濟動向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최근 경기동향을 중심으로 -

신 석 하 〈KDI 거시경제팀〉

I. 최근의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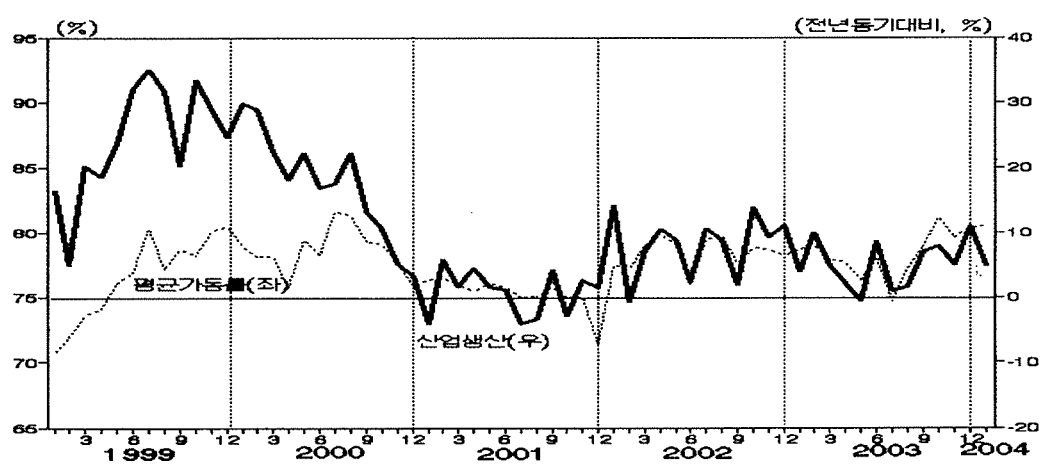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및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공식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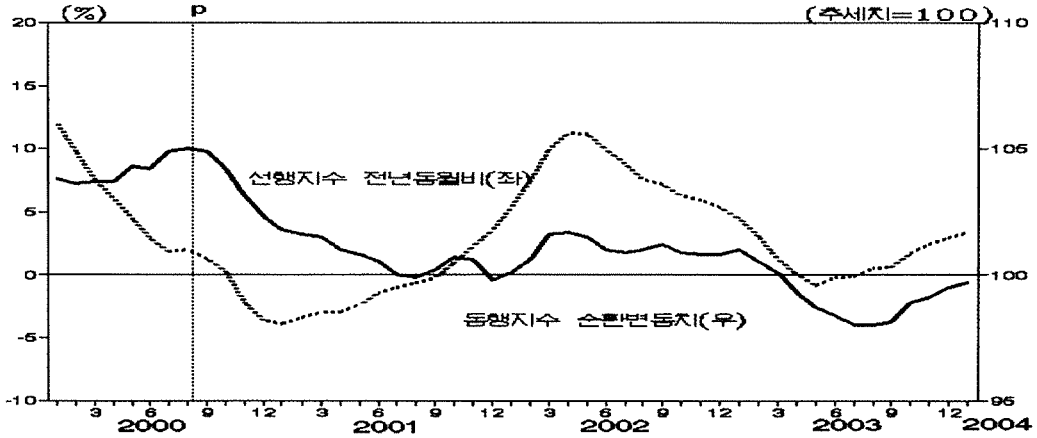
2003년 4/4분기에 3%대 후반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생산은 1월중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하여 전월(10.9%)보다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이는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조업일수 등을 감안한 계절조

(그림 1) 산업생산 증가율 및 평균가동률 추이



(그림 2)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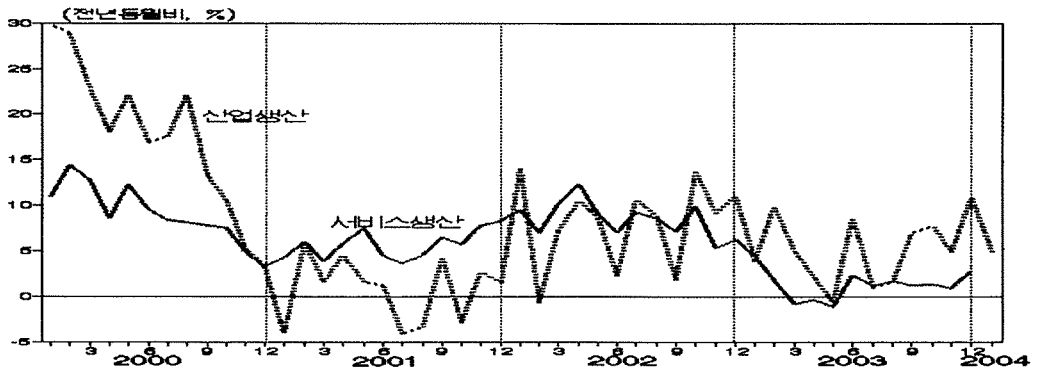
정지수는 전월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1월중 80.5%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의 증가율도 4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등 경기관련 지표들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 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월중 99.7을 기록하여 작년 6월 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월에 비해 0.3%p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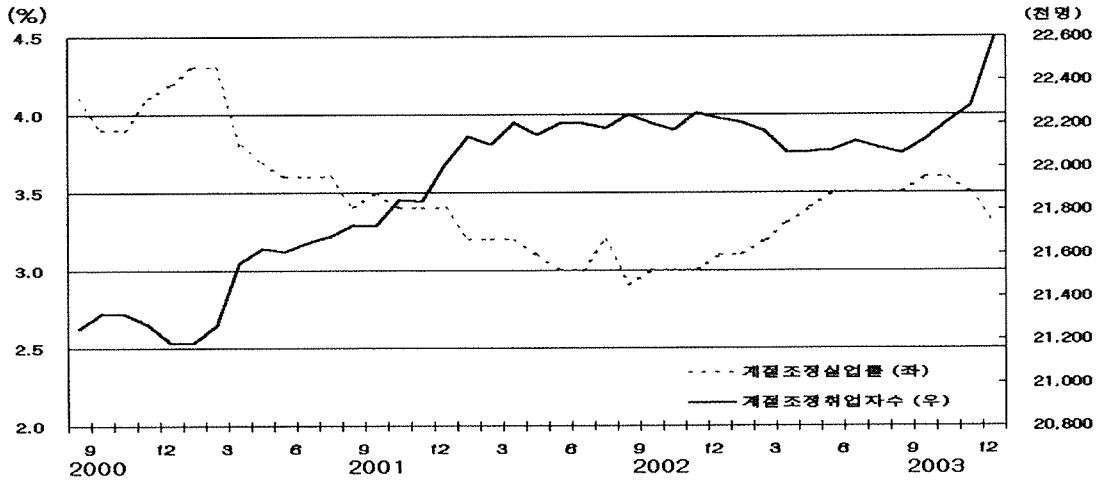
서비스생산은 12월중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산업생산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내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작년중 크게 부진하였던 고용상황도 제조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1월중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각각 2.0%, 1.7%로 전월(0.7%, 0.2%)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취업자수는 특히 제조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폭 증

(그림 3)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그림 4)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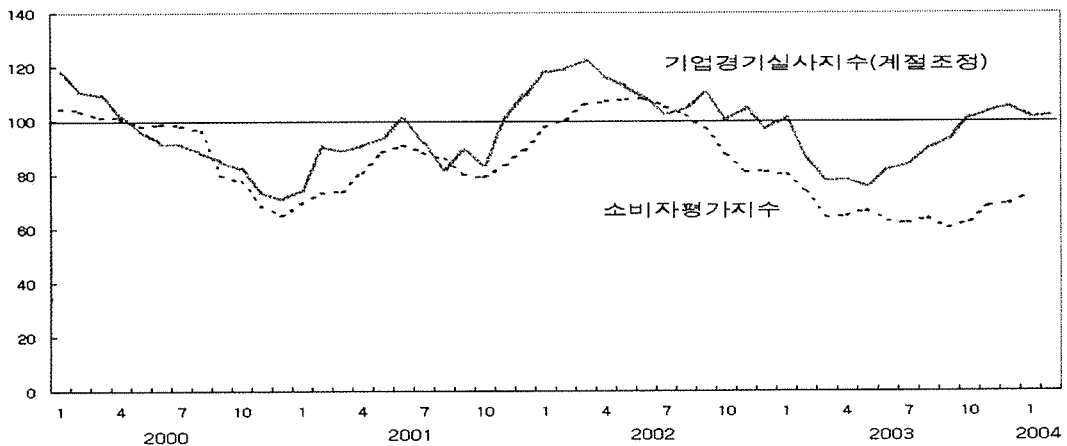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월중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3.6%)보다 소폭 상승한 3.7%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3.5%)에 이어 3.3%로 하락하여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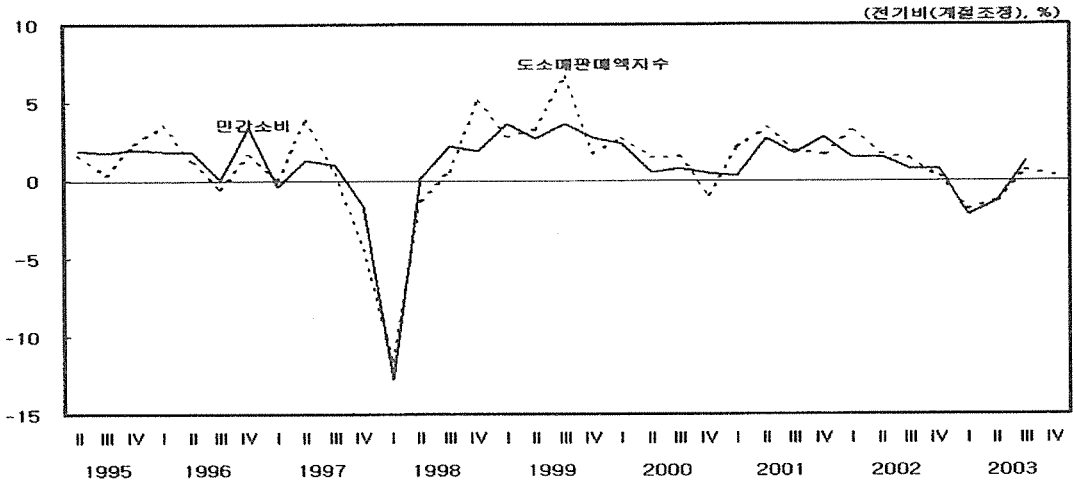
수출호조에 기인한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대기업들의 체감경기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도 점진

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월중 전경련의 경기실사지수는 계절조정기준으로 전월(101.1)과 비슷한 101.9를 기록하였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BSI는 전월(80)보다 낮은 77을 기록하였다.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는 1월중에 각각 72.6과 98.0을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그림 5) 기업실사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변화 추이



(그림 6)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지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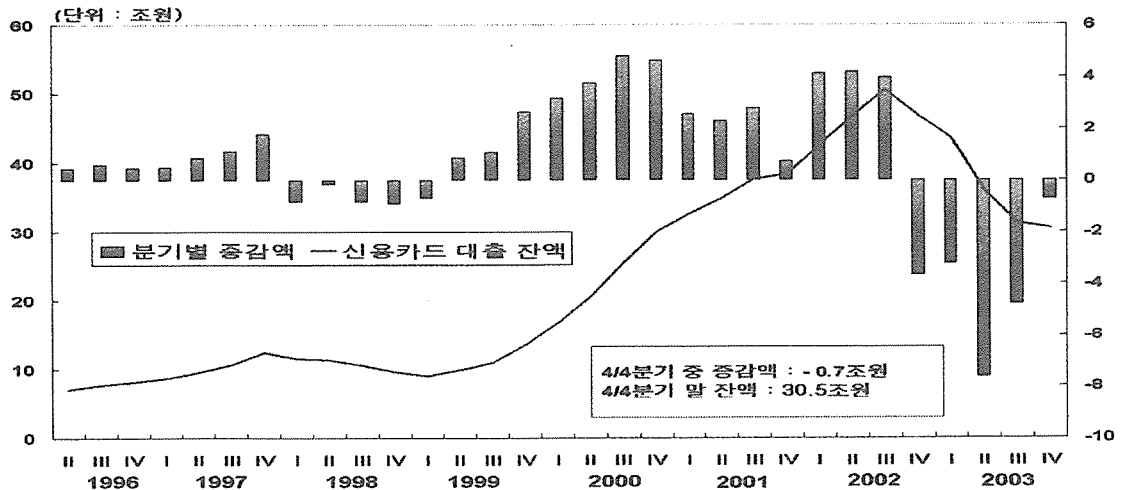
II. 경기에 대한 진단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과 고용의 회복과 더불어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의 급증과 내수회복의 지체를 반영하

여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기 회복 및 달러약세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작년의 경기하강을 주도해 온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중 도소매판매는 계절조정기준으로 전월대비 1.8% 증가하여 전월(0.5%)에 비해 증가세가

(그림 7) 신용카드사 가계신용 변화추이





확대되었다.

특히 민간소비 위축의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간소비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은 작년 3/4분기까지 분기당 5조원 내외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0.7조원 감소에 그쳐 가계신용의 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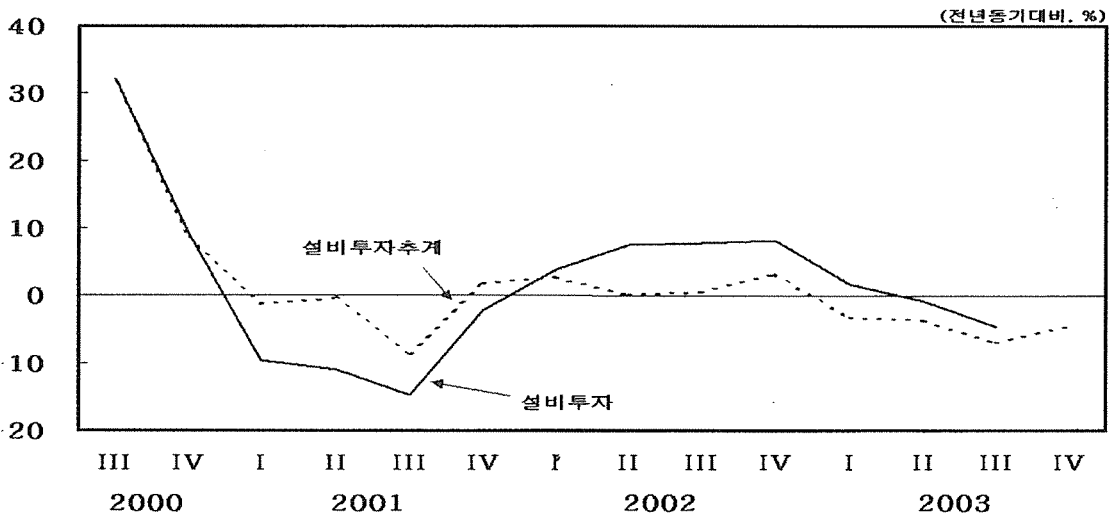
크게 침체되어있던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월중 설비투자추계와 기계류내수출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1%, -9.0%를 기록하여 전월(-1.6%, -3.6%)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월중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하여 전월(-9.1%)의 감소세에서 반전하였다.

지난 2~3년간 급증하였던 건설투자는 최근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월중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여 전월(24.4%)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건설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1월중 공공부문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로 반전하였다. 건축허가면적도 1월중 주거용 및 상업용의 감소세 확대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41.5%의 감소를 기록하여 전월(-4.9%)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동안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작년 말 이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2월중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와 전년동월의 상대적인 수출부진으로 인한 기술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전월(32.7%)보다 더욱 확대된 45.9%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IT제품, 자동차 등 주요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며, 지역별로는대중국 수출(71.0%)이 전체 수출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일본·EU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2월중 증가율이 26.4%를 기록하여 전월

[그림 8]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추계 추이



(11.2%)에 이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의 지체는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추세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세계경기 회복 및 달러약세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무역수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도 20.5억 달러를 기록하여 6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 달러약세 추세속에서 원화가치가 달러에 주로 연동되어 변동함에 따라 수입물가(원화기준)는 달러표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1월중 전월대비 1.8% 상승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도 2월중 전월대비 0.6% 상승하는 등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Ⅲ.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경제는 작년 4/4분기에 연율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3/4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지소되고 있는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사정의 개선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며 향후 경기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작년 4/4분기에 계절조정기준으로 전기대비 1.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3/4분기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및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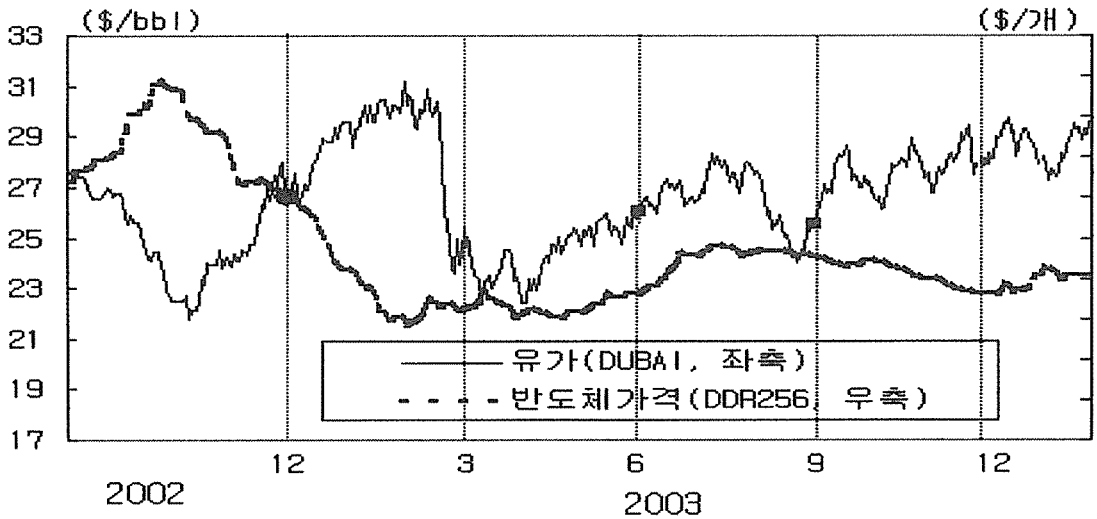
[표 1]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

	비중 ¹⁾	2002		2003						200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2월	1월
건설투자	1.00	6.0	3.3	8.1	7.2	7.8	-	-	-	-	-
(계절조정)		(8.3)	(-)	(3.5)	(-1.1)	(-2.1)	-	-	-	-	-
건물건설	0.53	11.1	14.4	14.0	12.8	13.9	-	-	-	-	-
기타건설	0.47	2.1	-6.7	-3.3	1.3	1.0	-	-	-	-	-
건설기성액	1.00	15.3	11.2	20.7	18.4	17.9	18.6	18.8	12.2	24.4	7.4
공공부문	0.38	-8.5	-8.1	13.7	9.1	14.0	21.1	14.8	16.3	24.5	-8.4
민간부문	0.58	32.9	24.5	24.8	24.9	21.4	18.9	22.2	11.7	26.7	17.6
국내건설수주	1.00	19.8	33.0	3.3	50.5	47.6	2.1	22.5	-14.8	6.7	-14.3
공공부문	0.29	-10.3	-1.1	-12.8	25.9	30.9	-10.7	2.8	-15.7	-11.1	36.4
민간부문	0.66	43.4	59.2	6.6	52.4	57.0	17.2	31.6	4.2	21.2	-27.2
(제조업)	(0.05)	95.5	44.5	10.9	-16.2	99.7	-0.6	20.2	53.8	-46.1	153.2
건축허가면적	1.00	24.1	42.0	3.4	21.0	-2.0	-14.7	2.4	-12.5	-4.9	-41.5
주거용	0.41	8.7	19.8	-8.7	50.2	5.6	-13.4	8.4	-7.9	-5.8	-60.1
상업용	0.36	41.0	92.6	-3.2	-0.6	-10.5	-20.8	-8.1	-12.8	-6.0	-53.1
공업용	0.11	20.6	13.5	21.2	-14.4	-5.5	-14.2	-4.1	-32.6	-15.3	-10.7

주: 1) 비중은 2002년 연간 기준임.

(그림 9) 국제유가 및 반도체가격 추이



가 증가하는 한편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경제의 경우 작년 4/4분기중 전기대비 0.3% 성장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하여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체감지수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경제는 수출호조 및 소비증가에 따라 경기가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투자는 과잉투자를 우려한 당국의 억제조치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의 생산쿼터 감산결정과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세계 석유수요 전망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2월중 배럴당 28~29달러 (Dubai 기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년에 하락추세를 지속하던 반도체 가격은 금년들어 4달러(256MB DDR 기준)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를 유지하였으나 2월 하순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엔·유로

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하였다.

통화당국은 당분간 콜금리를 현재 수준(3.8%)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 및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인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월중 연간계획대비 재정집행률이 7.5%를 기록하여 2003년 동월(5.6%)보다 높아지는 등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V. 향후 전망

2004년에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생산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동안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하반기 들어

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현재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200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증가 및 가동률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라 2004년에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투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증가율이 2% 내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금액)의 증가세는 2003년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기인하여 2003년보다 소폭 낮은 19%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금액)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3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소

득·경상이전 수지의 적자폭이 2003년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3년보다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4년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동안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들어 내수부문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의 하락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원화가치 상승, 임금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2003년보다 크게 낮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외 환율 변동,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 탄핵 및 총선 등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탄핵 및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